

도심 상가 경기침체에 극심한 경영난

광주 오피스빌딩 임대료 6대 도시중 최하위 공실률도 14.4% ... 전국 평균 보다 2배 높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지역의 건물 소유자들이 낮은 임대료 수입과 높은 공실률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상무지구와 금호지구 등 인가지역의 상가 임대료 및 공실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구 충장로 등 구도심 상권의 위축이 가속화되는 등 지역별 상가 수익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광주 오피스빌딩의 m²당 임대료는 월 평균 4천6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천400원)보다 200원 오른 것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도시 평균(1만4천3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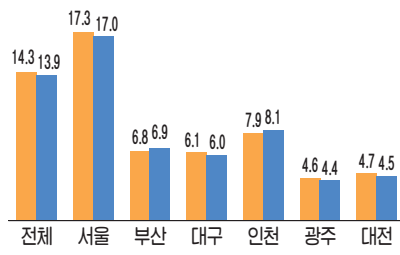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서울의 m²당 임대료가 1만7천300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7천900원) ▲부산(6

천800원) ▲대구(6천100원) ▲울산(4천900원) ▲대전(4천700원)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또 매장용빌딩(1층 기준)의 임대료가 2만3천500원으로, 전국 평균(3만7천900원)은 물론, ▲서울(5만1천원) ▲부산(3만700원) ▲대전(2만7천원) 등을 크게 밑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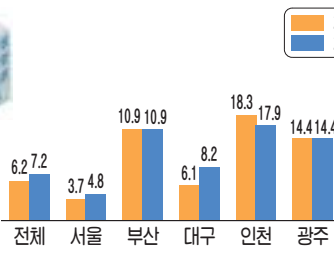
하지만 광주는 이같은 임대료 수준에도 상가 공실률은 여전히 15%대에 육박하고 있어 건물 소유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광주의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14.4%로, 전국 평균(6.2%)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매장용빌딩의 공실률도 14.4%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10.9%)을 크게 웃돌고 있다. 시청 등 각종 공공기관과 복합영화관 등이 밀집한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하락

■7대도시 오피스빌딩 m²당 임대료 (단위:천원)



■7대도시 오피스빌딩 공실률 (단위:%)



했을뿐 총장료를 비롯한 기존 상권은 오히려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입주자들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울퉁불퉁한 지역 내 주요 업무·상업용 빌딩이 대거 경제사정으로 내몰리면서 장기 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을 실감케 하고 있다.

경제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울퉁불퉁한 광주에서 법원 경매에 부쳐진 업무·상업용 빌딩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H빌딩(감정가 515억원)을 비롯해 총 262건에 달했다.

이제는 지난해 상반기(255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2년째 '무더기' 경매가 이어지고 있다.

지지옥션 김은 팀장은 "장기불황과 과잉 공급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 내 건물주들이 낮은 임대료와 높은 공실률로 인해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광주의 경우 대형업체의 잇따른 입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지역 상권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아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휴가前' 타결...지역민 '환영'

노조요구 대부분 수용 '퍼주기 논란'도

기아자동차 노사가 24일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 달부터 계속된 부분파업의 고리를 끊었다.

그러나 기아차 노사가 17년 연속파업을 이어간 데다 합의과정에서 노사공동 실천사항 등에 대해 노조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등 향후 파업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4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7만5천원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이 이날 전격적으로 잠정안 마련에 합의한 것은 자동차업계의 파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가운데 기아차만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노사 양측이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28일 이전에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타협을 이끌어낸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휴가 전에 찬반투표

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차기 협상은 휴가가 끝나는 8월6일 이후에나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을 두고 4분기 연속 적자를 외면한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고분고분 받아들였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부터 13일간의 부분파업을 통해 기본급 7만5천원(기본급 대비 5.2%) 인상 외에 생계비 부족금 150%, 질목표(IQS)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 쟁점 3개를 다뤘다.

이에 대해 한 경제계 관계자는 "17년째 연속파업을 빨리 끊어낸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노조가 요구한 대부분을 사측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퍼주기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7일 부분파업에 돌입, 24일까지 생산차질대수 2만3천567대, 손실액 3천393억원을 기록했다. 광주공장의 경우 생산차질대수 7천700대, 1천200억원의 손실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GS칼텍스 여수공장 무재해 600만인시 달성

정유업계 최초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정유업계 최초로 무재해 600만 인시(人時)를 달성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지난 2005년 5월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총 806일 동안 하루 이상의 작업 손실을 일으키는 화재사고나 설비 손상에 따른 5천만원 이상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600만 인시를 달성했다.

현재 여수공장에는 약 1천3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그동안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위해 1999년부터 안전관찰 교육프로그램인 'STOP(Safety Training Obser-

vation Program)제' 도입을 시작으로 2005년 '안전마일리지제', 2006년 무사고·무재해 프로그램인 'IIF(Incident & Injury Free)제' 등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허진수 여수공장 생산본부장은 "정유산업은 고온·고압 설비를 24시간 상시 가동해야 하는 장치 산업적 특성상 위험요소가 상존한다"며 "앞으로도 종업원들의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무재해 작업장을 계속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안전 인시란=모든 종업원들의 하루 근무시간을 합한뒤 무사고 날짜수를 곱해 산정된다.

NH투자증권 광주지점

서구 치평동 이전 오픈

NH투자증권 광주지점이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오션빌딩 3층에서 최준태 농협중앙회 신용부본부장, 김철수 NH투자증권 전무, 고객대

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기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NH투자증권 정호근 광주지점장은 "새로 옮긴 상무지구는 신용 상권으로 고객 접근성이 좋고 공공 및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어 영업력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협 팜스테이 고추따기 체험

여름방학을 맞은 광주 시내 초등학생들이 24일 화순군 도암면 봉하마을에서 농협전남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팜스테이 행사에 참여, 고추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은 광주 시내 초등학생들이 24일 화순군 도암면 봉하마을에서 농협전남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팜스테이 행사에 참여, 고추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제공)

미 쇠고기 개방폭 오늘중 윤곽

정부, 갈비 포함 뼈 수입 '30개월 미만' 조건 유력

미국산 쇠고기 개방 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 이르면 25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갈비를 포함한 뼈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4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당국과 소 생산자단체 등에 따르면 25일 농림부는 과천 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의제로 가족방역협의회를 열 예정이

다. 검역당국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가족 위생·검역상황 관련 설문 답변서와 이달초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고려 가능한 개방수준을 정리해 협의회에 상정한다.

검역원장, 질병관리본부, 가족위생 방역지원본부 관계자, 교수, 생산자단체 등 18명의 검역 전문가들이 이날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뒤 정부측에 의견을 전달한다. /연합뉴스

삼겹살 대신 美 쇠고기만 먹나

롯데마트 등 시판 후 돼지고기 판매 10% 줄어

롯데마트가 국내 대형 할인매장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산 냉장육 등 쇠고기를 수입, 판매하는 동안 한우의 판매는 별다른 영향이 받지 않았지만 돼지고기의 판매가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경우 매출 분석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한 지난 13~22일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량이 250t으로, 작년 같은 기간 280t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측은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대체제인 돼

고기 구매 고객 상당수가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국산 냉장 삼겹살의 경우 정상 판매가격이 100g당 1천680원, 행사가격은 1천380원으로, 미국산 쇠고기인 '척아미롤'의 냉동육 1천350원, 냉장육 1천58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싼 편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냉장육 10t과 냉동육 30t을 지난 13일부터 전국 53개 매장에 판매한 데 이어 냉장육 50t을 추가로 들여와 19일부터 판매 중이다.

/연합뉴스

여름大특강 개강

★ 카빙(carving) 과일조각합석·소세초밥 수강생 모집 ★
주3회 오전 10시/오후 4시

맛과 멋이 함께하는 행복한 요리교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한국 요리 시범(가정용)
- 일본 요리 시범(가정용)
- 프랑스 요리 시범(가정용)
- 중국 요리 시범(가정용)
- 카빙 과일조각합석반 (4주과정)

- 월~금 : 이론수업 11시~1시
- 월~금 : 실습수업 2시~4시
- 화~토 : 강의실 7시
- 화~토 : 열식실습 3시
- 화~토 : 음식실습 7시
- 화~토 : 국제조리대란 10시~11시
- 토 : 북아일랜드 10시
- 주말오리 : 주2회 Free time

과제 및 대만민간 학교 실용화 지원 | 10월 1일부터 2012년 카빙조각 대회반 현장직접지도

가정용 카빙수업은 카빙합석반 분과관리부장감상수업

에스더원요리학원 (062)385-0723, 384-1884

유·미·공·조·음·식·영·양·관·리·학·원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RODEM 직수입 엔틱 원물백상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신제품 30%~50% 할인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